

특집논문

기행현의 과거 준비와 응시 및 인적네트워크 - 1866년~1869년을 중심으로 -*

전 경 목(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목차

1. 머리말
 2. 과거 준비
 3. 과거 응시
 4. 인적네트워크
 5. 맺음말
-

1. 머리말

『홍재일기』¹를 살펴보면 기행현(奇幸鉉, 1843~?)이 살았던 시기가 한국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격동기였던만큼 그의 관심이 시기에 따라 크게 다르고 이에 따라 인적 네트워크도 크게 변하여 상이한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홍재일기』의 기록에 의해, 기행현의 관심이 어떻게 변천되며 이에 수반되어 그의 인적 네트워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고 싶다. 다만 본고는 그 첫 번째 작업으로 『홍재일기』의 전반부를 분석해서 기행현이 젊었을 때,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지역사회 안에서 어떠한 인물들과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었는지를 파악해보겠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시기적으로는 그가 일기를 쓰기 시작한 1866년(고종3)부터 부친이 사망한 1869년(고종6)까지 4년 동안인데 이때 그가 공부 모임인 ‘접(接)’을 어떻게 구성하고 무슨 공부를 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싶다. 또 지방과 중앙의 과거 시험을 치르기 위해 오가는 과정에서 그가 무엇을 준비하고 아울러 과거응시 이외에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를 밝히고 싶다. 끝으로 이 기간 동안에 그가 향촌사회에서 어떠한 인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싶다.

그런데 기행현의 수학과정과 과거응시 및 교유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임혜영과 송행근이 소개한 바 있다.²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수학과 과거

* 이 논문은 2023년 부안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의 발표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1 『홍재일기』는 기행현이 1866년 3월부터 1911년 12월까지 쓴 일기로 2022년에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에서 국역하여 간행한 바 있다.

응시 과정에서 나타난 ‘접’에 대해 좀더 상세히 주목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전통교육 과정이나 과거 준비 과정에서 ‘접’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는데 학계에서는 이에 대해 그다지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설령 관심을 보인다 해도 이를 보는 시각에서 필자와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송행근은 ‘접’을 ‘학습공간’으로 파악했으나 필자는 ‘학습모임’으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우선 차이가 있다. 즉 한 공간 예컨대 어느 특정한 암자에서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진 서로 다른 접이 동시에 상이한 내용을 학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같은 공간에도 서로 다른 공부 모임이 존재했다.

한편 기행현의 인적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임혜영이 분석해 다양한 사실들을 밝혀냈다. 그는 『홍재일기』에 등장하는 인물 2,000여 명의 거주지와 친족 및 혼인 관계를 추적하고 조문과 방문의 횟수 등을 일일이 조사하여 인적네트워크를 상세히 규명했다. 그러나 필자는 기행현의 관심사에 따라 시기별로 이 인적관계망에 변화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가 일기를 쓴 전기간을 구분지어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만나는 대상도 중요하지만 어떤 조직이나 모임에 참여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동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그가 과거 시험에 관심이 있어서 ‘접’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공부하는 시기에 국한해서 살펴보려 한다. 또 그가 지방의 어떠한 조직이나 친목 단체 예컨대 면향약이나 각종 계에 어떻게 참여했는지를 추적해서 그의 인적관계를 알아보았다. 이는 그의

2 임혜영, 『『홍재일기』를 통해 본 지방사족의 일상생활』과 송행근, 『『홍재일기』에 나타난 기행현의 학습과정과 중국 시문의 수용』(2022년 이재연구소 학술대회, 『『홍재일기』(1866~1911)로 본 부안의 사회상』 발표자료집 참조).

나이 24세 때부터 27세 때까지로 젊은 유학자로서 자신의 삶에 왕성한 의욕을 보이는 시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 대부분의 유학자들이 그러하였듯 기행현의 과거 시험에 대한 공부도 부친이 돌아가시면서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³ 따라서 그 이후 그의 관심은 향촌지역의 조직과 동향에 집중되는 것으로 파악된다.⁴ 그래서인지 면의 실무자라고 할 수 있는 직강(直講), 훈집(訓執), 사수(社首), 훈약(訓約), 훈약장(訓約長) 등을 역임하기도 한다. 또 마을에 부과되는 균역이나 부세 등에 관심이 많아 이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일기에 남겼다. 따라서 관심이 과거 준비와 과거 응시에서 어떠한 계기로 지역의 현안문제로 바뀌게 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아야 하나 이는 차후의 과제로 남겨두겠다.

2. 과거 준비

『홍재일기』는 봄기운이 화창하던 1866년 3월 10일에 예재(禮齋)에서 독서를 하는 것으로 시작한다.⁵ 독서를 한 이유는 유학을 익혀 바른 사

3 기행현은 1887년(고종24) 8월에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채 전주에서 실시하는 향시에 참여했는데 이는 접과 관련이 없으므로 본고에서는 제외했다.

4 김영준, 「19세기 후반 부안군 훈집(訓執)의 성격과 역할 『홍재일기』를 중심으로」, 『인문 과학연구』 77, 55-81쪽 참조.

5 丙寅三月 初十日 始記 初十日 春氣方和 讀於禮齋. 본고를 작성하면서 전북대학교 이재 연구소에서 간행한 『국역 홍재일기』에 크게 의존했다. 그러나 『弘齋日記』 원본 자체에 교감이 필요할 정도로 오탈자가 상당한데다 또 정서나 번역 과정에서 생긴 실수도 가끔 있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원문을 소개한다.

람이 되기 위해서였지만 현실적으로는 과거에 합격하여 입신양명하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었다. 예제는 부안현 상서면⁶ 백석리 예동(禮洞)에 있는 서재(書齋)로 그 주인은 김병용(金秉鏞)이었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조선 후기에는 궁벽한 향촌의 마을까지도 서당이나 서재(書齋)가 설립되어 있었는데 이 예제도 그 중 하나였다. 서재에 대한 호칭은 일반적으로 ‘예재’나 ‘용동재(龍洞齋)’와 같이 그것이 있던 곳의 지명을 덧붙여 불렀다. 즉 예제는 예동에 있는 서재이며 용동재는 같은 고을 좌산면(左山面) 용동에 있는 서재를 가리켰다.⁷ 또 서재 주인의 성(姓)에 따라 부르기도 했다. 예컨대 면의 실무자들이 군역의 배당과 관련하여 같은 해 9월 8일에 송재(宋齋)에서 모였는데 송재는 송씨의 서재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⁸ 1868년(고종5) 윤4월 4일에 석동의 김재(金齋)에서 공부모임이 개설되었는데 석동산(席洞山)에 있는 취성재(聚星齋)가 부안김씨의 재각(齋閣)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불렀다.⁹

서당과 서재는 다 같이 전통교육을 실시했던 기관으로 간주되지만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다.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서당은 훈장이 직접 학동을 가르쳤다. 이에 비해 서재는 ‘관심사가 같은 사람끼리 모여서 함께 공부하는 모임’에 더 가까웠다.¹⁰ 따

6 서재가 있던 예동이나 기행현이 살았던 흥애 마을이 조선시대의 행정구역상 어느 면에 속했는지는 미상이다. 예동은 읍지나 『호구총수』 등에 나타나지 않으며 흥애는 『호구총수』에 南上面에 속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정작 기행현이 받은 直講 差帖에는 南下面으로 적혀 있다. (1885년 9월 3일 일기) 따라서 예동과 흥애 마을이 조선시대에 어느 면에 속했는지는 좀더 조사를 해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7 (1866년 4월) 三十日 … 往龍洞齋 見宋青坡而來.

8 (1866년 9월) 初八日 … 面會于宋齋 小軍二名入于此村云.

9 (1868년 윤4월) 初四日 … 往石(席의 誤)洞金齋設接.

라서 서당에서 사서삼경 등을 공부한 이후 과거시험에 대비하기 위해 서재에서 모임을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다만 이때에도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경서(經書)에 능통하거나 글 잘 짓는 선생을 접장(接長)으로 초빙하여 과거 시험에 나올만한 시제(試題)를 출제토록 하고 첨삭지도를 받아 실제 시험에 대비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공부 모임을 ‘접(接)’ 또는 ‘접중(接中)’이라 불렀으며¹¹ 서재에 거쳐하면서 공부하는 것을 거접(居接),¹² 함께 공부하는 행위나 사람을 ‘동접(同接)’, 동접인(同接人) 혹은 ‘동접생(同接生)’이라고 했다.¹³ 또 공부 모임 개설하는 것을 ‘설접(設接)’¹⁴ 이를 끝내는 것을 ‘과접(罷接)’이라 하고¹⁵ 접에서 가르치거나 선도하는 스승이나 선배를 ‘접장(接長)’ 지도받는 자들을 ‘접인(接人) 또는 ‘접생(接生)’이라 칭했다.

기행현이 예재에서 독서하는 것으로 일기를 시작한 것은 그가 이전에도 이곳에서 글을 읽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대개 접을 결성하는 이유는 가까운 미래에 과거시험이 실시되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이며 과접하는 이유는 서울 또는 타지에서 실시되는 과거 시험장에 가야하기 때문이었다. 기행현이 예재에서 책을 읽은 그 날, 서재의 주인인 김병용은 과거 응시를 위해 상경한 직후이며 접장이었던 백학래(白鶴來) 역

10 김동석, 『조선시대 선비의 과거와 시권』,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118~121쪽.

11 (1868년 5월) 十二日 … 逢金斗植於柿倉下 相間接中事.

12 (1868년 5월) 二十日 … 禮洞閔勝鎬來到 言道東金齋巨(居의 誤)接云.

13 (1866년 8월) 二十二日 … 午後同接 或行或在 而余亦發行次 往于宗人舍館 同行至月峯書院宿所.

14 (1866년 4월) 二十日 … 始設接於禮齋 而青田猶未當到 徒聚接率十餘人 出韻詠詩而罷.

15 (1866년 7월) 十五日 … 罷接.

시 응정(甕井)의 김규혁(金奎赫)과 상경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기행현과 술을 마시며 헤어지는 섭섭함을 달래려 했다.¹⁶ 일기에 의하면, 그로부터 16일 후인 3월 26일에 정시(庭試)가 실시되었는데¹⁷ 이날 국왕은 춘당대(春塘臺)에서 경과정시문과(慶科庭試文科)를 실시하여¹⁸ 진사 황익수(黃益秀) 등 10명을 선발했다.¹⁹ 경과라고 한 것은 철종(哲宗)이 태묘(太廟)에 부제(祔祭)되고 대왕대미와 왕대미 및 대미가 존숭(尊崇)되는 등 4가지 경사를 함께 축하하기 위해서 실시된 시험이기 때문이다.²⁰

1) 예재접(1차)

기행현은 비록 3월 26일 실시한 경과정시에는 응시하지 못했지만 곧 실시될 식년시(式年試) 향시(鄉試)를 위해 서둘러 설접해야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서재의 주인인 김병용이 4월 9일에 서울에서 내려오자²¹ 4월 20일에 10여 명의 유생과 함께 서둘러 설접하고 모여서 운을 내어 시를 읊고서 파했다.²² 접장으로 추대한 백학래가 아직 서울에서 내려오

16 (1866년 3월) 初十日 … (禮齋)主人金秉鏞(字益三 詩號海隱) 上京發行後 陽山里白進士鶴來(字殷文 詩號青田) 亦上京次 與甕井金奎赫(字正三 詩號東井) 聯鞭而來 沽酒以餞別矣.

17 (1866년 3월) 二十六日 … 是日廷試也.

18 丙寅三月二十六日卯時, 上詣春塘臺, 慶科庭試文科試取. (『승정원일기』, 고종 3년 3월 26일.)

19 『고종실록』, 고종 3년 3월 26일. 그러나 『국조문과방목』에 의하면 이때 합격자는 20명이다.

20 『국조문과방목』 3, 1669쪽.

21 (1866년 4월) 初九日 … 海隱(김병용의 詩號-인용자주)丈 自京下來 問京奇則 及第盡是京城人.

22 (1866년 4월) 二十日 … 始設接於禮齋 而青田猶未當到 徒聚接率十餘人 出韻詠詩而罷

지 않아 설접하기에 적절한 때가 아니었다. 백학래가 부안으로 돌아온 것은 그로부터 5일이 지난 4월 25일이다.²³

백학래는 같은 고을 상서면 양산(陽山) 마을에 세거하던 수원백씨(水原白氏) 출신으로 1859년(철종10)의 증광시에서 진사에 합격한 인물이었다.²⁴ 기행현이 이처럼 서둘러 설접한 것은 백학래를 접장으로 선점하기 위해서였는데 그것은 그가 글을 잘 짓는 데다 전거(典據)가 확실한 시제(試題)를 적절히 선정하고 섬세한 시평(詩評)을 하기로 인근에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의 제자 모임인 문생계(門生契)에 30여 명이 참가할 정도라 하니 당시 그의 명성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²⁵

기행현 등이 백학래를 접장으로 모시고 예제에서 정식으로 설접한 것은 다음 달 첫날 즉 5월 1일이었는데 이 날은 첫 모임이라서 간단하게 운을 내어 시를 읊는 것으로 그쳤다.²⁶ 그러나 다음 날부터는 백학래가 매일 시험문제를 고풍제(古風題)와 시제(詩題)로 나누어 출제해서 이에 맞추어 글을 짓도록 했다.²⁷ 예컨대 5월 2일의 고풍제는 “두 개의 감과 한 말의 술을 가지고 가서 꾀꼬리 소리를 듣고자 하네.[携雙柑斗酒 往聽黃鸝聲]”이며 시제는 “하늘과 땅 사이에 다시 어떤 즐거움이 있어서 이것과 바꿀

23 (1866년 4월) 二十五日 … 白靑田自京下來 問京奇則 景福宮事 百分之內 猶未成一分.

24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참조.

25 (1866년 9월) 十五日 … 是日 陽山白靑田門生契也 團會三十餘人脩契.

26 (1866년 5월) 初一日 … 是日設接于禮齋 出韻相詠

27 고풍은 자수(字數), 구수(句數), 평측(平仄) 등의 제약이 없는 중국 수나라 이전의 시체(詩體)를 통칭하는 말로 고시(古詩)라고도 했다. 당나라 이후에는 시를 지으려면 자수나 구수 및 평측 등을 맞추어야 했는데 이를 고시와 구분해서 근체시(近體詩)라 했으며 통칭해서 그냥 시라 했다.

수 있을지 알지 못하겠네[不知天壤之間 復有何樂 可以代此]”이다.

고풍제는 대옹(戴顛)의 고사와 관련이 있다. 대옹은 유송(劉宋) 즉 남조(南朝) 송나라 때의 은사(隱士)인데 어느 봄날에 감귤 두 꾸러미와 술 한 말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자 어떤 사람이 그를 보고 어디 가느냐고 묻자 그는 “피꼬리 소리를 들으러 간다. 그 소리는 속인(俗人)의 귀를 일깨우고 시심(詩心)을 고취시켜 주는데, 그대는 그걸 아는가”라고 대답했다 한다. 시제는 북송(北宋)의 유학자이자 정치가인 사마광(司馬光)이 지은 「독락원기(獨樂園記)」에 나오는 구절이다. 사마광은 낙양에서 한직(閑職)으로 옮긴 후 퇴근하여 머물며 독서하던 정원을 독락원이라 이름 지었는데 「독락원기」는 그 경위 등을 밝힌 글이다.

이처럼 접장인 백학래는 매일 전거가 있는 고풍제와 시제를 출제하여 글을 짓도록 했는데 이는 파접하던 7월 15일까지 계속되었다. 기행현은 이와 같이 설접에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서재에서 거접하며 누구보다도 열심히 글 짓는 데에 열중했다. 그러나 거접하던 시기가 하필이면 농사철과 겹쳤기 때문에 날씨가 기후 및 농사일에 마음 쓰지 않을 수 없었다. 다음의 일기를 보면 기행현이 가문 날씨 때문에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백성들은 비가 흠족하게 내리지 않으니 근심하며 모내기 하지 못함을 탄식했다.²⁸

성황당에서 기우제를 지냈다.²⁹

28 (1866년 5월) 十三日 … 民以雨不足爲憂 有鋤種之歎.

29 (1866년 5월) 十八日 … 祈雨於城隍壇.

비는 내리기는 하였지만 가벼운 먼지조차 적시지 못했다.³⁰

저물어도 낮처럼 맑았다. 백성들의 근심이 너무 크다.³¹

질게 흐렸지만 비는 내리지 않았다. 백성들의 근심이 너무 크다.³²

그러다 마침 비가 내려 농사일이 바빠지면 그도 서재에 앉아 글을 짓거나 책을 읽지 못하고 들판으로 달려나가 집안일을 도와야 했다.

초복이다. … 모내기에 필요한 비가 너무 늦게 왔다. (늦었지만 비가 내리자) 들마다 모를 심느라 남녀가 모두 나왔다. 농사짓는 시기라서 서재에 갈 틈이 없었다.³³

오랫동안 비가 충분히 내리지 않아 모내기를 할 수 없었는데 늦게나마 비가 흠뻑 내렸다. 그러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든 인력이 들에 나와 모를 심었다. 사실 모내기 전후로 농가에서는 할 일이 태산같이 많았다. 그래서 그 역시 서재에 가서 공부할 틈이 없었다.

그러나 모내기가 끝나자마자 즉시 서둘러 서재로 향했다. 이러한 사실은 6월 8일의 일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들마다 하얗다. 모내기 일이 끝났다. 서재에 가는 길에 홀연히 벼꽃을 보았다. 풍제(風題)는 “허리에 돈 10만 관을 찬 채 학을 타고 양주(揚州)로

30 (1866년 5월) 二十日 雖雨未溼輕塵.

31 (1866년 5월) 二十六日 … 暮而午晴 民憂太甚.

32 (1866년 6월) 初一日 陰陰不雨 民憂太甚.

33 (1866년 6월) 初三日 伏 … 蒺(秧의 誤)雨太晚 野鋤種 男女盡出 南畝之時 未暇述書齋.

가네”이다.³⁴

들마다 하얀 것은 전날 비가 넉넉히 와서 모내기를 할 수 있도록 못물이 찻기 때문에 그렇게 비친 것이었다. 그는 모내기를 마치자 서둘러 서재로 돌아갔는데 일찍 모내기를 한 논에서는 벌써 벼꽃이 폈다. 일기에 따르면, 예재 주변 마을에서 일찍 모내기를 한 것은 4월 22일이었으므로 이미 벼꽃이 필만도 했다.³⁵ 서재로 돌아온 그는 쉬지도 못하고 곧장 접장이 낸 고품제에 지어 제출해야만 했다. 이날의 고품제는 송대 은예(殷芸)가 지은 <소설(小說)>에 전거를 둔 것이었다. <소설>에 따르면, 여러 사람이 각자 원하는 바를 말했는데 어느 한사람은 양주의 자사(刺史)가 되고 싶다 하고 다른 사람은 많은 돈을 벌기 원하고 또 다른 사람은 학을 타기를 소원했다. 그러자 이를 듣고 있던 나머지 한 사람이 세 사람의 소원을 합쳐 “허리에 돈 10만 관을 찬 채 학을 타고 양주로 가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재에서 접을 구성해서 히는 공부는 참가 유생의 형편이나 여건에 따라 서재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또 선생인 접장의 사정에 따라 며칠간 휴접(休接)할 때도 있었다. 백학래는 당시 부안 수령인 이운필(李雲弼)과 절친했는데 전라감영에 일이 있자 수령은 백학래를 초청하여 함께 전주에 다녀오려고 했다. 그래서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 동안 휴접하기도 했다.³⁶

34 (1866년 6월) 初八日 … 野野生白 蕪(秧의 誤)事已了 往于書齋 忽見稻花 風題 腰帶十萬貫 騎鶴上揚州.

35 (1866년 4월) 二十二日 夏氣薰人 忽聞四野有插秧之聲.

과거시험에 대비해서 설접하긴 했지만, 예제가 마을 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공부에 집중하기 어려운 면들이 있었다. 공부하는 사람을 만나 위로한답시고 찾아오는 손님이 적지 않아 번거로워서 시제(詩題)를 출제하지 못하는 때도 있었으며³⁷ 귀한 손님이 찾아오고 중복달임을 하느라 역시 시제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³⁸ 또 말복일에는 마을의 어르신 예닐곱 명이 예제에서 회동을 하고서 편안하고 한가롭게 놀다 가기도 했다.³⁹

당시의 상황과 여건이 이처럼 과거 공부에 전념하기에 좋지 못했지만, 기행현 등은 5월 1일에 정식 설접한 이후 7월 15일 과접 때까지⁴⁰ 총 73일 동안 거접했다. 그 중 기행현이 출석하지 않은 날은 겨우 5일, 접장이 휴접한 날은 3일, 도합 8일을 제외한 65일 동안 기행현은 예제에서 동료들과 함께 과거 시험에 대비한 글짓기를 매일매일 했다. 설접할 때 함께 한 동료가 10여 명이라 했는데 일기에 구체적으로 이름이 기재된 인물은 김재철(金在轍), 황학문(黃鶴紋), 권기풍(權基豐), 송진상(宋鎭祥), 권구룡(權九龍) 등이었다. 과접한 이유는 머지 않아 치러질 식년시 향시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⁴¹ 이들은 오랫동안 거접하면서 든 정 때문에 과접 후 잠 못 이루기도 하고⁴² 또 곧바로 헤어지지 못해서 하루종일 붙어 다니기

36 (1866년 6월) 二十一日 … 靑田先生 與本倅李雲弼 偕往全州 今日來臨 接中連三日限遊故出.

37 (1866년 5월) 初四日 … 詩 客煩未出題.

38 (1866년 6월) 十三日 少止 中庚煮伏 會賓客以樂終日 風題 六出祈山 答三顧草廬.

39 (1866년 7월) 初四日 … 鄉中老人六七 會于禮齋 優遊而去 是日未庚也.

40 (1866년 7월) 十五日 … 罷接.

41 3장 과거응시에서 살펴보면, 1867년에 실시될 식년시의 초시가 전년 즉 1866년 8월에 치러졌다.

도 했으며⁴³ 함께 서로의 집을 방문하기도 했다.⁴⁴ 예제의 설접 논의 등을 비롯해서 예제에서 거절한 일정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 예제집(1차) 거절 현황

일시	내용	비고
4월 20일	설접 논의	10여 명이 회합
25일	접장 도착	
5월 1일	정식 설접	
6월 3일~7일	기행현 결석	농사
19일~21일	휴접	접장 출타
7월 15일	과접	

2) 관가(官家) 설강

수령의 임무 중의 하나가 지역민 교화를 위한 ‘흥학교(興學校)’였다. 학교 즉 향교(鄕校)에서 유생의 학업을 진작시켜야 했다. 특히 문과 출신이 배치되는 지역에서는 이러한 점이 더욱 강조되었다. 당시 부안현감은 이운필(李雲弼)이었는데 그는 문과 급제자로 지역의 유생들로부터 커다란 지지를 받고 있었다. 과거시험을 보러 상경했던 부안출신의 낙방거자(落榜舉子)들이 비변사에 글을 올려 태수의 유임을 비변사에 요청한 사.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⁴⁵ 아무튼 부안의 수령이었던 이운필은

42 (1866년 7월) 十六日 … 旧雨(友의 誤)間送別 相惜終日 不能更宿.

43 (1866년 7월) 十七日 … 相送餞 與古阜金在轍黃鶴紋權基豐宋鎭祥 不忍相分 終日相隨 至岾山宿.

44 (1866년 7월) 十九日 … 日日相從 至古阜黃鶴紋家宿; 二十日 … 相隨 至答洞權九龍家宿

45 (1866년 4월) 初九日 … 扶風之落榜舉子爲太守李雲弼願留云.

과거 시험이 임박하자 시험 볼 유생들에게 1866년 7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 4일간의 강의를 한 바 있는데 기행현도 접장 백학래와 함께 참여했다.⁴⁶ 다만 이때 강의했던 내용은 무엇이고 어디에서 강의를 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가 전하지 않아 알 수 없지만, 설강 현황을 소개하면 다음의 <표 2>와 같으며 예재접(1차)와 관가설강을 마친 후 기행현은 <표 3>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광주에서 실시하는 식년시 향시에 응시하는데 이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다.

<표 2> 관가 설강 현황

일시	내용	비고
7월 27일 ~ 8월 1일	강의	청전과 함께 참가

<표 3> 식년시 향시 준비 과정

1866. 5. 1. ~ 7. 15.	→	1866. 7. 27. ~ 8. 1.	→	1866. 8. 19. ~ 8. 21.
예재접(1차)		관가설강		식년시 향시(광주)
접장 : 백학래 접생 : 10여 명		수령 주도		백학래와 함께 참가

3) 칠성암접(1차)

기행현은 위 <표 3>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광주에서 실시한 향시에 응시했다. 그러나 기대했던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⁴⁷ 그 후 접장인 백학래의 문하생(門下生) 30여 명이 선생의 수강(壽康)을 기원하고 서로간

46 (1866년 7월) 二十九日 … 科日漸近 故官家設講於今月二十七日 撤講於來月初一日 云 故與青田先生 共入講.

47 (1866년 8월) 二十四日 … 欲聞科消息杳然 但聞試官求錢云.

의 친목을 다지는 문생계(門生契)를 했다.⁴⁸ 이 자리에서 아마 기행현 등은 자신들이 과거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분석하고 다음 시험에 대비해서 칠성암에서 설접하여 공부하지는 제안을 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칠성암은 개암사(開巖寺) 소속의 암자로 과거 준비생에게는 잘 알려져 있는 곳이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부안 출신의 문과 급제자 최해(崔濼) 등 7노인이 77세가 되던 해의 7월 7일에 칠성암에 모여 계회(契會)를 했는데 세상에서는 이를 칠칠회(七七會)라 불렀다고 한다.⁴⁹ 또 암자 아래 마을 밖에 있는 회시동(回柿洞)에는 산천의 정기가 모여 있어서 3명의 문장가가 배출될 것이라는 말이 전해지고 있었는데 횡성(橫城) 김일좌(金日佐), 월파(月坡) 최경(崔勁), 화순(和順) 송래백(宋來柏)이 나와서 세상에 이름을 떨쳤다 한다.⁵⁰ 그래서 과거 준비생들은 이곳에 거접하는 것을 선망했다.

기행현은 1866년 10월 1일에 돈계의 김기혁, 송촌(松村)의 배장흡과 함께 칠성암에 올라가 책을 읽었다.⁵¹ 이 때의 설접이 이전의 예동 설접과 다른 것은 예동의 설접이 제술(製述) 즉 시와 부 등을 짓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칠성암의 그것은 강경(講經) 곧 경서(經書)의 내용을 심

48 (1866년 9월) 十五日 … 是日 陽山白青田門生契也 團會三十餘人脩契.

49 이 모임의 후손들이 칠성암과 관련된 기록들을 정리하여 1846년에 『七星菴同遊錄』(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청구기호 위창古3606-1)을 간행했다.

50 七星菴(金興運 崔濼 金壽良 金履孝 許紱 金練輝 金宗旭 七老人 年皆七十七 而以七月七日 稷會于此 … 世稱七七會 菴下洞口外 有回柿洞 俗傳山川精氣融聚 出三文章 云 橫城金日佐 月坡崔勁 和順宋來柏 三文章果出鳴世)(『扶安邑誌』上, 23A.).

51 (1866년 10월) 初一日 … 與遯溪金基嫻松村裴璋翁 入七星菴 讀書.

층적으로 익히는 공부를 했다는 점이다.⁵² 따라서 전지는 글 짓는 것을 방법을 일러주고 이를 품평해야 하기 때문에 접장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경서를 반복해서 읽고 암송해서 깊은 뜻을 스스로 터득하면 되었기 때문에 접장이 꼭 필요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기행연이 칠성암에서 거접할 때에는 접장을 초빙하지 않았다.⁵³

그런데 칠성암에서 설접을 시작하자마자 연일 바람이 불고 날씨가 추웠다. 그래서 기행현은 추위를 견디지 못해 잠시 집으로 돌아왔는데⁵⁴ 후에 살펴보니 김기혁도 역시 그러하였다. 이들은 월동 채비를 갖춘 후 다시 암자로 올라갔는데⁵⁵ 김기혁의 부친과 백부가 추운 날씨에 암자에서 거접하는 것이 염려스러웠던지 직접 칠성암을 방문하여 거접 환경을 살펴보고 주지를 불러 식사 등을 잘 제공하도록 당부하기도 했다.⁵⁶ 기행현은 이러한 우여곡절을 겪은 후 다시 칠성암으로 올라와 『서전』을 다시 읽기 시작했다.⁵⁷

기행현은 칠성암에 거접하면서 틈틈이 산에 오르기도 하고 또 인근

52 물론 독서만 하고 제술은 하지 않았다는 말은 아니다. 틈틈이 친구들을 만나면 가끔韻을 내어 시를 지었다. 1866년 10월 15일과 16일에 김창포를 만나자 운을 내어 시를 지었다. (1866년 10월) 十五日 … 與金蒼圃出韻相詠; 十六日 … 出韻云.

53 물론 암자에서 실시하는 모든 접이 그러한 것은 아니었다. 이웃 도솔암의 사례를 살펴보면 조부나 스승이 손자나 제자를 암자로 데리고 와서 교육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1867년 3월) 十一日 … 上兜率菴 古阜高濟萬氏 與其孫昌延來留教之.

54 (1866년 10월) 初三日 … 連四五日風吹; 初四日 甚寒 下家.

55 (1866년 10월) 初六日 晴寒 霜風甚巖 往遯溪金基燁 亦下來 故相與入菴.

56 (1866년 10월) 初七日 … 金基燁伯父正言養默 其父八默 日暮來臨 招主僧 以善供待之意 訓責而下去.

57 (1866년 10월) 初八日 … 再閱書傳.

암자에 거접하는 사람을 방문하기도 했으며 또 자신을 찾아 암자로 올라오는 사람을 만나기도 했다. 이전부터 잘 알고 지내던 읍내에 사는 학동 유의열(兪宜烈) 등이 칠성암에 왔다갔는데 그가 지니고 온 풍축(風軸)을 살펴보니 아름다운 시구가 매우 많았다.⁵⁸ 다음날에 그는 우진암(禹鎭巖)⁵⁹을 등반하기도 하고⁶⁰ 50여 일 후에는 인근에 있는 정관암(靜觀菴)⁶¹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공부하던 사람을 만나기도 했다. 그 사찰에는 황곡(皇谷)에 사는 조맹활(趙孟活)이 와서 독서하고 있었다.⁶² 그로부터 보름 정도가 지난 후에는 조맹활이 답방 형식으로 기행현을 찾아와 시축을 보여주기도 했다.⁶³

칠성암에 거접하는 동안 식사는 암자의 스님이 제공해 주었는데 기행현은 그 비용으로 아침저녁에는 각각 4홉, 점심에는 2홉의 쌀을 암자에 지불했다⁶⁴ 친지가 찾아올 경우, 그 식사 비용을 기행현이 별도로 지불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예컨대 앞에서 소개한 읍동(邑童) 유의열 등이 그를 찾아왔을 때 점심값을 2배로 지급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그렇게 추측할 수 있다.⁶⁵ 반찬은 대부분 암자에서 만들었지만 집에서 식량을 조달할 때 함께 가져오기도 했다.⁶⁶

58 (1866년 10월) 初九日 … 邑童兪宜烈苗浦兩金童來到而今午去 探其風軸佳句甚多.

59 우금바위로 추정된다.

60 (1866년 10월) 初十日 … 暮上禹鎭岩而來.

61 어디에 있었는지 미상이다.

62 (1866년 11월) 三十日 … 往淨觀菴 皇谷趙孟浩 讀書矣.

63 (1866년 12월) 十七日 … 淨觀菴讀書趙孟活…來到 韻軸視余 見則佳句甚多.

64 (1866년 10월) 初八日 … 朝夕食四合 午二合.

65 (1866년 10월) 初九日 … 邑童兪宜烈苗浦兩金童來到而今午去 … 今午四合.

66 (1866년 11월) 十八日 … 糧饌來到.

칠성암 거접에서 눈에 띄는 점은 아래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집안이나 마을에 일이 있을 때마다 기양현이 자주 외출을 했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10월 17일에는 아버지가 편찮다는 소식을 듣고 또 다음날 종제(從弟)의 관례(冠禮)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집으로 내려갔으며⁶⁷ 11월 15일에는 친구들과 모이는 계(稷)에 참여하기 위해 암자에서 내려갔다.⁶⁸

또 주목되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독서하기 위해 칠성암으로 왔다는 점이다. 예컨대 11월 12일에 앞에서 소개한 유의열과 배창윤이 칠성암으로 올라와서 기행현의 앞방에서 책을 읽었다.⁶⁹ 같은 달 22일에는 갈촌에 사는 유인식(柳寅植) 역시 독서하려고 암자에 왔으며⁷⁰ 다음 달 4일에는 내포(萊浦)에 사는 김치일(金致鎰)이 도착해서 앞방에서 책을 읽었다.⁷¹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암자에 몰려들었는데⁷² 그것은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칠성암이 거접하기 좋은 암자로 소문이 나 있어서 그런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유의열과 배창윤 등이 칠성암에서 기행현과 동시에 독서를 했다고 해서 동접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 동접

67 (1866년 10월) 十七日 … 聞親爲欠寧 從弟冠禮在來日云 故下家則 親爲大損 以疾改病 故卽向醫家問則 累年灯下角好云.

68 (1866년 11월) 十五日 … 下來 … 到家 親患差愈 往禮洞修稷 余及從弟恒永 閱致鼎金永杓閑任福金安倅 昨年一兩式作稷.

69 (1866년 11월) 十二日 … 俞宜烈裴昌允 讀書于前面房.

70 (1866년 11월) 二十二日 … 葛村柳寅植 讀書次來到云 … 前房讀書裴昌允來到云.

71 (1866년 12월) 初四日 … 萊浦金致鎰來到 讀書於前房.

72 (1866년 12월) 初六日 … 金需烈又讀書次 來留; 初九日 … 葛村柳友基震讀書次 來留; 十七日 … 葛村柳潤興讀書次來留 號葛坡 萊浦金漢哲號硯方來到 … 自作勸農文 勸道文來示余.

이라하면 기행현과 함께 칠성암에서 책을 읽기로 논의하고 함께 들어갔던 김기혁과 배장흡만을 지칭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행현은 독서를 위해 칠성암에서 1866년 10월 1일에 설접한 이래 같은 해 12월 25일에 파접을 했다.⁷³ 총 85일의 거접 기간 중 외출한 날짜는 27일이므로 실제로 거접한 기간은 58일 동안이라 할 수 있는데 칠성암에서의 거접 상황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4> 칠성암접(1차) 거접 현황⁷⁴

일시	내용	비고
10월 1일~3일	설접	독서
4일~5일	외출	추위
10월 6일~16일	거접	
17일~21일	외출	가사, 아버지 병환
22일~25일	거접	
26일~11월 9일	외출	아버지 병환, 위친계와 문계 참여
11월 9일~14일	거접	
15일~16일	외출	一兩楔
11월 17일~12월 9일	거접	양식과 반찬 도착. 독서유생 증가, 정관암 방문.
12월 10일~12일	외출	김영표 吉行
13일~24일	거접	독서유생 증가
25일	파접	

73 (1866년 12월) 二十五日 … 與諸益 罷接時 出韻相贈.

74 송행근은 칠성암접을 10월 1일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1차로, 11월 9일부터 12월 25일까지 2차로 구분했다. 그것은 10월 26일의 일기에 ‘自菴下來’, 그리고 11월 9일에 ‘到菴’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에 따라 나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自菴下來’는 불

4) 예재접(2차)

1867년(고종4) 2월 3일에 부안현감은 향교에 문서를 보내어 9월 17일에 경과정시를 시행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렸다.⁷⁵ 이 시험은 대왕대비님의 나이가 60세가 되고 익종대왕에게 존호가 추가로 올려지고 대왕대비전에 존호를 올리는 세 가지 경사가 겹쳐서 이를 축하하기 위해 실시되는 시험이었다. 같은 달 29일에는 기행현이 예동에 가서 부안 출신으로 진사시 합격자 소식을 들었는데 석제(石堤)에 사는 이겸술(李兼述)과 노적리(露積里)에 사는 박해봉(朴海鳳)이 그 주인공이었다.⁷⁶ 그 이튿날은 백학래의 제자들이 돈계에 모여 문생계를 했기 때문에 기행현은 거기에 참석했다.⁷⁷

설접에 대한 이야기는 그러한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왔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기행현이 4월 17일에 내예동(內禮洞)에 사는 백낙선(白樂善)의 집에 가서 이에 대한 소문을 들려주었다.⁷⁸ 그러나 5월이 되도록 설접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임씨의 재실⁷⁹로부터 예재에 이르기까지 설접하기 적당한 장소를 물색했으나 명확하게 결정하지 못했다.⁸⁰ 그러다 5

일이 있어서 암자에서 외출한 것을 말하며 12월 25일에 동접생들과 헤어질 때 비로소 '罷接'이라 언급한다. 따라서 이때의 칠성암접은 10월 1일부터 12월 25일까지 시행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75 (1867년 2월) 初四日 … 昨日付本倅下帖校中 以大王大妃寶齡六旬 翼宗大王加上尊號 大王大妃殿加上尊號 慶科廷試 以來九月十七日爲定云.

76 (1867년 2월) 二十九日 … 往禮洞 聞科消息 則石堤李兼(謙의 誤)述露積里朴海鳳爲之云.

77 (1867년 2월) 三十日 … 遯溪白青田 門生稷日 故往參.

78 (1867년 4월) 十七日 … 往內禮洞白樂善家 設接云.

79 林齋는 支石里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867년 4월) 二十七日 與海隱丈 往支石里 林齋而來.

월 3일에 예재에서 설접하고 곧바로 시제를 출제했는데 시와 고품의 문제를 함께 냈다.⁸¹

그 이후 예재 설접은 1차 때와 유사하게 전개되었다. 공부하다 잠시 쉬고 싶을 때에는 인근에 있던 암자를 방문하기도 하고⁸² 같이 공부하다 문과에 급제하거나 진사시에 합격한 동료들이 예재를 방문했을 때에는 하루 밤낮을 함께 어울려 놀기도 했다.⁸³ 중복에 여러 손님들이 오자 그들과 함께 모여 하루 종일 즐겁게 놀기도 했고⁸⁴ 또 접생에게 시제와 풍제를 나누어주고 짝을 지어 경쟁하도록 했다.⁸⁵

2차 예재 설접 때에도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농번기에 실시되었기 때문에 기행현은 농사일이 바쁘면 예재에 가지 못하고 집안일을 도왔다. 대체적으로 일기에 풍제나 시제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날에는 예재에 가지 않은 날로 추측된다. 예컨대 설접 직후인 5월 6일과 7일에는 풍제나 시제 등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이때에는 접장이 출타했기 때문에 기행현도 예재에 가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⁸⁶ 또 접장이 읍으로 외출했다고 밝힌 5월 12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기행현은 오랫동안 예재에 가지 않고 집안일을 도왔던 것으로 보인다.⁸⁷ 다만 장기간 집에 있었

80 (1867년 5월) 初二日 … 自林齋至禮齋 設接姑未定的而來.

81 (1867년 5월) 初三日 … 設接於禮齋 始出題 詩風同題 園林纔夏麥先秋.

82 (1867년 6월) 十八日 初伏 … 午後往淨觀菴.

83 (1867년 6월) 十九日 … 笈(及의 誤)第蔡大永 李進士兼(謙의 誤)述 會于禮齋 一晝一夜遊.

84 (1867년 6월) 二十八日 仲庚 會賓客 終日勝遊.

85 (1867년 6월) 二十九日 天地洪垆中 詩風 分偶戰芸.

86 (1867년 5월) 初六日 西風猶寒 日旱大甚 野野插秧已乾 青田出他; 初七日 如昨而已.

87 (1867년 5월) 十二日 … 青田邑行了; 十三日 … 惱人薰人; 十四日 … 夏日如火 路上行

기 때문에 소식이 궁금해서 가끔 예재에 들렀으며 이때 들었던 풍제와 시제를 일기에 기록했다.⁸⁸

그러나 2차 예재 설접은 1차 때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우선 접장이 두 명이라는 점이다. 한 명은 1차 때의 접장인 백학래였지만 다른 한 명은 송방식(宋邦植)이었다. 그는 청림(靑林)에 세거하던 여산송씨(礪山宋氏) 출신으로 자(字)는 명집(明集)이고 시호(詩號)는 청과(靑坡)인데⁸⁹ 고을 내에서 서로 접장으로 모시려 할만큼 매우 인기가 좋았던 것으로 추정된다.⁹⁰ 기행현은 1866년 4월에 용동재에 머무는 그를 찾아간 적이 있는데⁹¹ 그것은 그가 그곳의 접장으로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기행현이 예재 2차 설접 이전에 예동으로 찾아가서 백학래와 송방식을 함께 만났는데⁹² 2차 예접 때에는 백학래의 외출이 잦을 것으로 예상되었기에 한 명의 접장을 더 모시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백학래가 주접장(主接長)이며 송방식은 주접장 부재시 이를 보완하는 부접장(副接長)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백학래는 당시 부안현감인 이운필과 매우 친했는데 수령이 현안이 있을 때마다 자문받기 위해 그를 불렀다. 실제로 백학래는 2차 설접한 지

人欲斷魂 …; 二十八日 … 秧事今日始了; 三十日 … 時雨適來 可謂農年有占; (1867년 6월) 初一日 … 雨中往禮洞.

88 (1867년 5월) 十七日 … 本倅李雲弼上去 而靑田亦隨先行 詩風同題出三 …; 二十二日 … 暮往禮洞而來; 二十九日 … 往禮洞金永杓家 … 永杓自禮齋來見 風題 則以成都佳釀 三十甕 送與張將軍飲 解孔明….

89 (1866년 4월) 十八日 … 靑林宋邦植(字明集 詩號靑坡[坡의 誤])…氏來臨.

90 그는 1879년(고종16) 식년시에서 진사에 합격한다.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참조)

91 (1866년 4월) 三十日 … 往龍洞齋 見宋靑坡而來.

92 (1867년 4월) 二十八日 … 往禮洞 奉見靑田與靑坡耳.

나흘이 지난 5월 6일과 12일에 출타하여⁹³ 접생(接生)은 제술하지 못했다. 같은 달 17일에 백학래는 상경하는 수령을 따라 전주까지 따라 갔는데 이때에는 미리 고풍제와 시제를 같은 제목으로 3 문제를 출제해 접장이 자리를 비웠음에도 제술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⁹⁴

부접장으로 초빙된 송방식이 예제에 나타난 것은 설접한 지 거의 한 달이 지난 6월 2일이었다.⁹⁵ 이때에는 백학래 접장도 있었을 때인데 그가 온 지 불과 3일 후인 6월 5일에는 두 접장이 모두 외출해서 결국 시제를 출제하지 못했다.⁹⁶ 송방식이 다시 예제를 찾은 것은 같은 달 26일이었으며⁹⁷ 7일 동안 머물다 다음 달 4일에 돌아갔다.⁹⁸ 그가 이처럼 예제에 머무는 기간이 짧았던 것은 이때 다른 접의 접장으로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2차 예제 설접이 1차와 차이가 있었던 것은 고풍제와 시제를 같은 제목으로 낼 때가 많았다는 점이다. 1차 예제 때에는 앞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고풍제와 시제를 따로 출제했으나 2차에서는 하나로 내는 경우가 매우 많았다. 예컨대 2차 설접 첫날인 5월 3일에 고풍제와 시제를 중국 북송대의 시인인 황정견(黃庭堅)의 북창(北窓)이라는 시의 둘째 구절인 “정원과 숲은 이제 막 여름인데 보리는 가을을 재촉하네[園林纔夏麥先秋]”로 냈다.⁹⁹ 1차 예제 때는 대부분 고풍제와 시제를 따로 출제한

93 (1867년 5월) 初六日 … 青田出他; 十二日 … 青田邑行了.

94 (1867년 5월) 十七日 … 本倅李雲弼上去 而青田亦隨完行 詩風同題出三.

95 (1867년 6월) 初二日 … 宋青坡亦來存.

96 (1867년 6월) 初五日 … 詩 田坡兩先生不來 故未出.

97 (1867년 6월) 二十六日 … 日暮宋先生來臨.

98 (1867년 7월) 初四日 … 宋先生去.

데 비해 2차 때는 이처럼 함께 내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같이 고품제와 시제를 함께 낸 것이 출제와 품평의 과정이 번거로워서 이를 줄이기 위해 그러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1867년 5월 3일에 설접한 후 7월 20일 파접까지 총 77일 동안 거접했다.¹⁰⁰ 그 중 기행현이 외출한 것은 아래의 <표 4>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무려 22일이나 되었다. 또 비록 거접 기간이라 하더라도 시제(試題)가 기록되지 않은 날이 적지 않았는데 7월에 들어서는 매우 심했다.¹⁰¹ 게다가 출제하고 품평해야 할 접장 백학래와 송방식의 외출이나 부재 또한 상당했다. 결국 제출하지 않은 날들이 많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그랬는지 곧바로 칠성암접을 시작했다. 2차 예제의 거접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예제접(2차) 거접 현황

일시	내용	비고
4월 17일	설접 소문	
5월 2일	설접 논의	
3일~5일	거접	
6일~7일	외출	접장 출타
8일~11일	거접	
12일~6월 1일	외출	12일, 17일 접장 출타

99 (1867년 5월) 初三日 … 設接於禮齋 始出題 詩風同題 園林纔夏麥先秋.

100 (1867년 7월) 二十日 … 是日罷接

101 (1867년 7월) 初三日 如昨; 初四日 如昨 宋先生去; 初五日 如昨; 初六日 如昨; 初八日 如昨 甚旱; 初九日 如昨 旧官李雲弼更來云.

6월 2일~7월 19일	거점	6월 2일 송집장 내왕 6월 5일 백접장과 송집장 부재 6월 26~7월 4일 송집장 내왕
7월 20일	파접	

5) 칠성암접(2차)

2차 예재접에서의 제술 활동이 부실해서 그랬는지 파접하고 헤어지는 자리에서 곧바로 칠성암접의 설접이 거론되었다. 파접하고 다음날 친구들과 이별할 때 곧바로 칠성암접을 열자고 논의하고 헤어졌으며¹⁰² 그 이튿날 기행현은 민치정(閔致鼎), 김영표(金永杓), 백낙선(白樂善) 등과 함께 칠성암에 도착했는데 이미 송진상(宋鎭庠), 유인식(柳寅植), 유윤흥(柳潤興)이 먼저 와서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다.¹⁰³ 설접한 이후 연이어 김채영(金彩永), 이방헌(李邦憲), 기만용(奇萬龍), 고창현(高昌賢), 유미경(柳美卿), 김기선(金耆善), 김성익(金聖益) 등이 차례대로 올라왔다. 접장인 백학래도 예재접에서 자신이 부재한 날이 많아 미안함을 느꼈는지 미리 시제를 출제해주기도 하고 또 직접 암자에 올라오기도 했다.¹⁰⁴

2차의 칠성암접은 1867년 7월 22일에 설접하여 8월 7일에 파접했기 때문에 겨우 15일 동안 유지되었다.¹⁰⁵ 이처럼 짧은 기간 동안만 거접한 이유는 2차 예재 파접 때 동료들과 헤어지는 것이 아쉬워서 충분한 준

102 (1867년 7월) 二十一日 … 諸益相別之時 更設研於七星菴之意 相約而分手.

103 (1867년 7월) 二十二日 … 與禮洞閔致鼎金永杓內禮洞白樂善 上七星菴 古阜青揚(陽의 誤)里宋鎭庠葛邨柳寅植柳潤興來坐.

104 (1867년 7월) 二十二日 … 青田已出三題送之 故不得浪遊; 二十六日 … 日暮遯溪白青田金耆善金聖益來到.

105 (1867년 8월) 初七日 … 罷接下來.

비도 없이 칠성암접을 설접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과거시험이 머지않은 장래에 실시되기 때문에 상경 준비를 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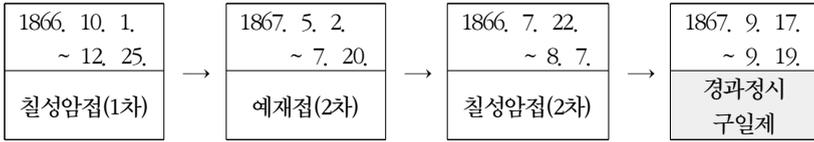
다만 2차 칠성암접이 1차 때와의 차이점은 1차 때에는 경서를 읽고 암송하며 그 뜻을 깊게 새긴 데에 비해서 2차 때에는 제술을 위주로 했다는 점이다. 그것은 대비하는 시험이 달랐기 때문이다. 1차 칠성암접은 식년시 향시를 대비했는데 이 시험에서는 경서의 의미를 묻는 사서 의(四書疑)나 오경의(五經義) 1편씩 작성해 제출해야 했다.¹⁰⁶ 그런데 2차 칠성암접은 경과정시를 대비하기 위해 설접했는데 이 시험에는 경서의 의미를 묻는 과정이 없었다. 그래서 2차 예재접 때와 같이 고시(古詩)와 시(詩)에 대해서만 익혔던 것이다. 2차 칠성암의 거접 활동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6>과 같으며 칠성암접(1차)와 예재접(2차) 및 칠성암접(2차)를 마친 후 <표 7>을 보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그는 서울에서 실시되는 정시와 구일제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 과정은 다음 장에서 살펴볼 예정이다.

<표 6> 칠성암접(2차)의 거접 현황

일시	내용	비고
7월 21일	설접 약속	
22일~27일	거접	27일 접장 방문
28일~29일	외출	
8월 1일~6일	거접	
7일	파접	

106 김동석, 『조선시대 선비의 과거와 시권』,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51쪽.

〈표 7〉 식년시 향시 준비 과정



6) 김접

기행현은 다음에 살펴보는 바와 같이 1867년 9월에 상경하여 경과정시와 구일제에 참여했지만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고향으로 돌아와서는 여행의 피곤함만 느꼈는지 두문불출했다.¹⁰⁷ 사실 그는 과거 시험장에서 받은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더군다나 돌아올 때는 노자가 바닥이 나서 죽을 고생을 했다.¹⁰⁸ 그래서 그랬는지 그는 이후에 설접에 대해서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다.

1868년(고종5) 윤4월 4일이 되자 동료였던 민치정, 김영표, 배장흠, 김희중(金喜鐘)이 와서 함께 석동(席洞)에 있는 취성재(聚星齋)로 가서 김재의 설접을 참관했다. 김재는 지고부군사(知古阜郡事) 김광서(金光敍)의 묘각으로 원래 현손곡(賢孫谷)에 있었는데 1819년(순조19)에 화재로 불타자 1826년(순조26)에 석동산으로 이건(移建)하고 취성재라 명명했다.¹⁰⁹ 마침 백학래도 와 있었는데 접장으로 초빙되어 왔지만 불행히 다음날 가족의 부고를 듣고 집으로 돌아갔다.¹¹⁰ 기행현은 설접에 참

107 (1867년 9월) 二十九日 … 不勝路德 故未出.

108 (1867년 9월) 二十五日 … 躓錢磬絕 顛到皇華亭宿; 二十七日 … 顛倒還巢.

109 聚星齋(在郡南五里 扶寧面蓮谷里席洞山中麓東 高麗奉正大夫知古阜郡事扶寧金光敍墓閣 舊在賢孫谷 名曰德星菴 純祖朝己卯回祿 越八年丙戌 移建于此 盖取林石川億齡詩 甕井多君子 金門聚德星之義也)(『부풍승람』 2, 齋閣).

관 후 곧바로 돌아가 한동안 거접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접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다음달 12일에 시정(柿亭) 아래에서 김두식을 만나 자 접중의 상황을 물어보았다.¹¹¹ 10여 일이 지난 5월 23일에 그는 결국 민승호(閔勝鎬)와 함께 석동의 김재로 가서 거접에 참여했다. 그는 다음의 <표 8>을 보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몇 차례 거접과 귀가를 반복하다가 7월 15일에 파접했다.¹¹²

<표 8> 김재접의 거접 상황

일시	내용	비고
윤4월 4일	설접	
5월 23일~6월 4일	거접	
6월 5일~8일	귀가	
6월 9일~15일	거접	
6월 16일~6월 21일	귀가	
6월 22일~6월 24일	거접	
6월 25일~7월 13일	귀가	
7월 14일	입재	
15일	파접	

<표 9> 식년시 향시 준비 과정

1868. 윤4. 4. ~ 7. 15.		1869. 6. 26.		1887. 8. 17. ~ 8. 19.
김재접	→	부친 사망	→	식년시 향시(전주)

110 (1868년 윤4월) 初四日 … 閔致勝金永杓裴璋翁金喜鐘來到宿 往石(席의 誤)洞金齋 設接 靑田先生來臨; 初五日 … 靑田先生 聞訃而去.

111 (1868년 5월) 十二日 … 逢金斗植於柿亭下 相問接中事.

112 (1868년 7월) 十五日 … 罷接.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재접은 1868년 윤4월 4일에 설접하여 같은 해 7월 15일까지 총 100일 동안 거접을 실시했다. 기행현은 뒤늦게 여기에 참여한 데다가 도중에 자주 집으로 돌아가 겨우 25일간 김재접에 머물렀다.

3. 과거 응시

기행현은 과거 실시 정보가 알려지면 미리 그에 맞게 접을 만들어서 공부하고 시험 날짜가 임박하면 파접한 후 시험장을 향해 출발했다. 그는 1866년 8월 19일에 광주에서 실시된 식년시 향시에 참여했으며 이듬해 9월 17일에 서울에서 거행된 경과정시에 참가했다. 『홍재일기』에 따르면 그는 모두 세 차례 과거 시험에 응시하는데¹¹³ 여기에서는 앞에서 소개한 두 차례 과행(科行)만 살펴보려고 한다. 우선 그가 광주 향시에 응시하러 가는 과정을 살펴보기로 하자.

1) 향시

기행현은 예재접(1차)과 관가의 설강을 들은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식년시(式年試) 향시에 응시하고자 했다. 과거 응시자는 지역에서 개최되는 향시를 통과해야만 그 다음 서울에서 개최되는 회시(會試)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졌다. 따라서 향시는 과거 합격의 첫 단추라

113 나머지 한 번은 1887년 8월에 전주에서 실시되는 시험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국역 홍재일기』 상, 489쪽 참조.

할 수 있다. 그런데 향시는 감사가 주관하여 실시하였기 때문에 그가 과거 시험을 어떻게 관리운영하느냐에 따라 합격 여부 등이 크게 달랐다. 그래서 기행현은 스승인 백학래에게 과거 규칙 등을 물었다. 그러자 백학래는 당시의 전라감사인 조재응(趙在膺)이 시에 능하기 때문에 다른 어느 때보다 과거 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 대답했다.¹¹⁴

그렇지만 관리의 편리함 때문에 향시를 감영 소재지에서만 실시하면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심각하게 불균형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았다. 그래서 한 지역의 균형을 좌우도를 나누고 그 한 고을에 시소(試所)를 돌아가면서 설치하도록 했다. 응시자가 좀더 가까운 시소로 가서 시험을 치르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기행현은 좌도나 우도 중 어느 곳에서 시험을 치러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마침 백학래가 좌도의 시소에서 치르겠다고 하자 그 역시 좌도의 시소인 광주로 가기로 결정했다. 물론 이를 위해서 공문이 필요했으므로 이를 청탁해서 받아냈다.¹¹⁵

그러나 기행현은 노자를 준비하지 못해 애를 태웠다.¹¹⁶ 천신만고 끝에 돈을 마련하여 8월 15일에 돈계(遯溪)에서 백학래, 김기령(金基齡), 김기혁(金基赫) 등과 함께 출발했다.¹¹⁷ 줄포, 고창, 장성 등을 거쳐 17일에 광주 서문 밖에 숙소를 정했다.¹¹⁸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시험을 보았는데 경시관(京試官)이 조창화(趙昌華)에서 정현유(鄭賢猷)로 바

114 (1866년 7월) 二十五日 … 日暮逢青田先生 問科規 則監司趙在膺善詩 故科規嚴於他時.

115 (1866년 8월) 十一日 … 科日漸近 於左於右 姑未定處 左都試邑光州 試官趙昌華善詩云; 十三日 … 科行欲同青田左行 故公文一張托出.

116 (1866년 8월) 十四日 … 科行在遯 盤躔未備.

117 (1866년 8월) 十五日 … 日暮發科行 至遯溪 與青田先生金基齡金基赫 至榮田酒店.

118 (1866년 8월) 十六日 … 苗浦朝飯 古(高의 誤)敝邑午飯 長城邑宿; 十七日 … 卽定舍館于西門外崔家.

끼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¹¹⁹

시험이 끝난 후 기행현은 광주 신촌에서 시험을 치르러 온 종인(宗人)을 만났다. 그래서 부안으로 되돌아 올 때에는 일행과 헤어져 광주 월봉서원으로 가 분향하고 선영에 들러 성묘한 후 장성 하사(下莎)를 방문하여 종인들을 만났다.¹²⁰ 그가 집으로 돌아온 것은 8월 27일인데 그는 결국 향시에 뽑히지 못했다. 다만 이때 좌도 합격자 중 함께 시험장으로 향했던 김기령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다.¹²¹ 식년시 향시에 응시하기 위해 광주에 다녀온 일정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0>과 같다.

<표 10> 식년시 향시 응시 여정

일시	내용	비고
7월 25일	과거 규칙 문의	
8월 11일	시소 미결정	
13일	좌도 응시 위해 공문 요청	
14일	노자 준비 못해 고민	
15일	광주로 출발	백학래, 김기령, 김기혁 등과 동행
16일~17일	고창, 장성 경유, 광주 도착	
18일	답안지 구입	

119 (1866년 8월) 十九日 … 是日科日也 上試本趙昌華 而忠清道 上試 中道交易鄭賢猷也… ; 二十日 … 午後卽入場 依據終場… ; 二十一日 … 入場後 題掛.

120 (1866년 8월) 二十二日 … 午後同接 或行或在 而余亦發行次 往于宗人舍館 同行至月峯書院宿所 ; 二十三日 … 奉拜諸先生 … 午至新村宿 ; 二十四日 … 先山省墓 尋訪諸族 ….

121 (1866년 8월) 二十六日 … 聞科消息 則左道榜三人 遯溪金基齡 露積里朴海鳳 石堤李炳五云 ; 二十七日 … 日暮抵巢.

19일~21일	과거 응시	
22일	부안으로 출발, 월봉서원 도착	
23일	서원 배알	
24일	광주의 선산 성묘	
25일	장성 종인 방문	
26일	부안 제내 도착	
27일	귀가	

2) 정시와 구일제

기행현은 1866년 8월 말에 광주에서 실시된 식년시 향시에 참가하고 부안으로 돌아와 약 한 달이 지난 10월 1일부터 동료인 김기혁, 배장흡과 함께 칠성암에 들어가 경서를 읽었다. 글을 잘 지으려면 그 바탕이 튼실해야 된다는 뜻에서 그랬던 것 같다. 칠성암에서 2달 가량 거접한 후 다시 두달이 지난 2월 4일 경과정시를 실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¹²² 조선 후기에는 경과(慶科)가 자주 설행되었다. 왕실에 경축할만한 행사가 있으면 이 기쁨을 신민에게도 널리 알린다는 취지에서 과거를 실시했다. 1867년에는 대왕대비의 연세가 환갑이 되고 또 익종대왕과 대왕대비전에 존호를 올리게 되자 이를 축하하기 위해 9월 17일에 과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기행현은 정시 실시 소식을 전해듣고 5월 2일부터 실시하는 예제의 2차 거접에 참가했다. 7월 20일에 예제 거접이 끝나자 바로 이어서 칠성암 2차 거접에 또 다시 참여했다. 이처럼 나름 착실하게 과거 시험에 대비했기 때문에 시험 일자가 다가오자 백학래 등과 9월 4일 출발하기

122 (1867년 2월) 初四日 … 慶科廷(庭의 誤)試 以來九月十七日爲定云.

로 약속했다.¹²³ 그러나 백학래의 병환으로 예정된 날짜에 떠나지 못하자 다음 날 김기선과 함께 출발했는데 노자를 읍내에 들러 당백전으로 바꾸었다.¹²⁴ 김제와 익산을 거친 후 금강을 건넌으며 천안과 수원 및 과천을 경유해 마침내 14일에 서울에 입성하여 남대문 안에 숙소를 정했다.¹²⁵ 10일 동안의 긴 여정이었다. 그는 호동(壺洞)에 있는 수령의 본가를 방문하여 이관술을 만났으며¹²⁶ 백학래가 서울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아가 본 후 그곳에서 잤다.¹²⁷

과거 시험 당일인 9월 17일에 그 전날부터 내리던 비가 그치지 않았는데 시험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추측컨대 비가 내리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모두 성균관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너무 많은 인파가 모여 들었기 때문에 이를 다 수용할 수 없었던 것 같다. 그러자 성균관 밖에 설치되어 있는 시험장으로 들어가 앉으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비록 비를 가리는 장막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차분하게 시험을 치르기가 매우 어려웠다. 그래서 그는 시제가 걸리자마자 곧바로 답안을 작성해 제출하고 나왔다.¹²⁸ 시험 결과는 다음날 알 수 있었는데 그는 비록 합격하지 못했지만 이

123 (1867년 8월) 初二日 … 與青田 京行定于初四日云.

124 (1867년 8월) 初五日 … 青田以滯感倚枕 不能發行; 初七日 … 遯溪耆善發行來到 故俱發 至邑內 躡錢當百錢還去 至金堤莊華鄭文益家宿.

125 (1867년 8월) 初八日 … 至益山立石店宿; 十一日 … 至天安三街宿; 十三日 … 至水原北門; 十四日 … 至果天(川의 誤) … 日暮入城 宿南門內豆粥家.

126 (1867년 8월) 十五日 … 往壺洞李扶安家 見本邑李觀術靈光盧首學而來.

127 (1867년 8월) 十六日 … 聞則白青田來到云 故雨中 往大寺洞吳致遠家 見之因館.

128 (1867년 9월) 十七日 如昨而不止 場中之事 万不成說 不得入場 坐於成均館外場令 果是出焉 大駕入後 賦題即掛 … 卽地納券而出來.

시험에서 7명의 인재가 선발되었다.¹²⁹

기행현은 하루 쉬고 그 다음날 즉 9월 19일에 성균관에서 실시한 구일제(九日製)에도 참여했다. 이 날은 날씨가 아주 좋아 가을의 정취를 맘껏 누릴 수 있었다. 시제는 “또한 높은 곳집이 만(萬)과 억(億) 및 자(祗)이거늘”인데 출전은 『시경』이며 풍년이 들어 곡식이 창고에 가득 가득 쌓여 있음을 노래하는 것이다.¹³⁰ 『승정원일기』에 의하면, 이때 참가자들이 제출된 시권이 무려 10,795장이나 되었다고 한다.¹³¹ 참가자 중 일부만 시권을 제출한 점을 고려하면 이날 절일제에 참여한 사람이 얼마나 많을지는 짐작하고도 남는다.

기행현은 시험을 마친 다음 날 국왕이 창화문(彰化門) 밖에 있는 광평창(廣平倉)에 거둥하자 그곳에 가서 멀리서 임금의 얼굴을 보았으며 세검정 석경루(石鏡樓)와 새롭게 건축하는 경복궁을 둘러보고 서둘러 귀향길에 올랐다. 서울을 왕래하는 사이에 물가가 크게 뛰어들라 내려올 때는 노자 부족으로 여러 차례 곤경을 겪으며 죽을 고생을 다했다.¹³² 기행현이 정시에 참여하기 위해 상경한 일정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1>과 같다.

129 (1867년 9월) 十八日 … 昨暮榜目出云 今朝得見 慶尙道三人 全羅道二人 黃海道一人 平安道一人 鄭度仁鄭應哲鄭芳鉉李商斗朴龍載宋洪姜永壽 七員用云.

130 (1867년 9월) 十九日 秋日晴好 節題 亦有高稟萬德及穉(稗의 誤) 成均館設場.

131 (趙)寧夏啓曰, 臣敬奉御題, 與弘文提學, 偕往泮宮, 九日製儒生試取, 則收券爲一萬七百九十五張矣. 捧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승정원일기』, 고종 4년 9월 19일.)

132 (1867년 9월) 二十日 … 彰化門外廣平倉巨(舉의 誤)動 故天顏謹承 … 翫洗釵亭石鏡樓而來 … 入見新建景福宮而來; 二十一日 … 下來時 見物價騰用 甚於他時…; 二十五日 … 躡錢罄絕 顛到皇華亭宿 一行徐相桓 知尹令升 故入其家 取五錢 纔拾(給의 誤)朝夕食價; 二十七日 … 至金堤四街 朝食三葉 顛倒還巢.

〈표 11〉 정시와 구일제 응시 여정

일시	내용	비고
9월 2일	상경 논의	
7일	출발	당백전으로 환전
8일~14일	김제, 익산, 천안, 수원, 과천, 남대문 도착	
15일	수령 본가 방문	
16일	백학래와 상면	
17일	정시 응시	
18일	합격자 확인	
19일	구일제 응시	
20일	서울 구경	
21일~27일	진위, 천안, 금강, 김제 경유 귀향	

과거시험을 치르기 위해 서울이나 다른 고을에 가는 것은 조선시대에 살았던 지방양반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경험이자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었다. 또 비용이 막대하게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일정을 잡아야 할지를 크게 고민했다. 예컨대 경상도 안동에 살았던 김병황(金秉璜, 1845~1914)은 다음의 〈표 12〉을 보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서울이나 대구로 과거시험을 보러 갈 때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 치러지는 시기를 선택했다. 김병황은 기행현과 거의 동시대의 사람인데 그는 1880년에 상경해서 6가지 시험을 치렀으며 1882년에는 7가지 시험에 응시했다.¹³³ 서울에 머무는 동안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었을 것이지만 한 차례 상경했을 때 여러 가지 시험에 응시해야만 합격 가능성이 그만

133 전경목, 「김병황의 과거 응시 전략과 그 함의」, 『일기의 행간에서 조선의 삶과 문화 깊이 읽기』, 새물결, 2018, 93~144쪽.

큼 높아졌기 때문이다.

<표 12> 김병황이 응시한 각종 시험 일람표

연도	시험명	날짜	장소
1880년	경과증광별시감시초시	2월 26일, 2월 28일	서울
	삼일제	2월 29일	
	관학유생응제시	4월 2일	
	경과증광별시감시초시재시	4월 18일, 4월 20일	
	일차유생전강	4월 21일	
	경과증광별시문과초시	4월 27일, 4월 28일, 4월 30일	
1881년	관학유생응제시	2월 8일	서울
	식년시감시초시	8월 20일, 8월 22일	대구
1882년	알성시	1월 12일	서울
	관학유생응제시	1월 22일	
	인일제	1월 29일	
	구도응제시	2월 8일	
	관학유생응제시	2월 26일	
	식년시감시회시	2월 27일, 2월 29일	
	별시초시	3월 7일, 3월 9일	
1885년	증광시감시초시	5월 13일, 5월 15일	서울
	경과증광별시문과초시	5월 25일, 5월 26일, 5월 28일	
	관학유생응제시	5월 27일	

김병황은 서울에 머무는 동안 과거 시험에 응시했을 뿐만 아니라 선대로부터 연망이 있던 관리들을 찾아가 관계를 돈독히 하고 그들의 후원을 받으려 했다. 예컨대 1881년 정월에 서울에 올라와서 관학유생응제시를 치른 후 이조참판 홍철주(洪澈周)와 좌의정 김병국(金炳國)에게 문안 드리고 친족을 통해 대원군으로부터 액서(額書)를 받으려고 했다. 또 서울에서 열리는 유희(儒會)에 참여하여 미국 등 서구 열강과 수교

하는 것을 반대했다. 1885년에는 성재(性齋) 허전(許傳)을 만나서 조부인 김두흠(金斗欽)의 묘갈명을 받았다.¹³⁴

이와 같이 과거 시험을 치르기 위해 상경했을 때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는 것은 부안의 양반들도 마찬가지였다. 예재의 주인인 김병용과 집장 백학래가 1866년 3월에 과거 시험을 치르기 위해 상경했을 때¹³⁵ 이들은 같은 달 26일에 실시된 정시(庭試)에 참여하고¹³⁶ 이어 다음날 시행된 삼일제에 참가했다.¹³⁷ 뿐만 아니라 전국 유생이 모여서 올린 만동묘 철폐 반대 상소에도 이름을 올렸으며 부안현감 이운필의 유임도 청원했다.¹³⁸ 이처럼 지방양반이 서울에 오갈 때에는 상당한 경비가 소요되었기 때문에 한 번 상경할 때 여러 가지 과거 시험에 응시할 뿐만 아니라 지역이나 집안의 숙원 사업과 관련된 일들도 처리하려고 할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4. 인적네트웍

기행현이 어떤 인적네트웍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임혜영

134 임혜영, 위의 논문, 136~138쪽.

135 (1866년 3월) 初十日 … 讀於禮齋 主人金秉鏞 … 上京發行後 陽山里白進士鶴來 … 亦上京次 … 聯鞭而來 沽酒以餞別矣.

136 (1866년 3월) 二十六日 … 是日廷試也.

137 丙寅三月二十七日卯時, 上詣春塘臺, 三日製試取. (『승정원일기』, 고종 3년 3월 27일.)

138 (1866년 4월) 初九日 … 海隱丈自京下來 問京奇則 … 廷(庭의 誤)試題 … 三日題 … 萬東廟伏閣事 狀頭鄭海最稱病不上 南原金漢忠自爲周旋促囚云 扶風之落榜舉子爲太守李雲弼願留云.

이 자세히 분석한 바 있다. 그는 『홍재일기』에 등장하는 2천여 명의 친분 관계를 조사하여 그중 기씨의 친족은 121명이며 친지의 거주지를 확인하여 예동에 136명, 읍내에 82명, 돈계에 37명, 백석에 28명, 송천에 14명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또 친지가 이웃고을인 고부에 66명, 김제에 27명, 순창에 11명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냈다. 또 연도별 분석을 통해 그가 부친 상중에 만났던 인물의 수가 가장 적었지만 직장이 된 이후 그 수가 크게 증가했는데 그것은 직책을 맡은 것과 유관하다는 점도 밝혀냈다.¹³⁹ 2천여 명이나 되는 인물들의 거주지나 친분 관계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매우 힘들고 지난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인적네트워크를 규명하는데 가장 기본적이고도 매우 중요한 작업을 통해 여러 가지 사실들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다만 기행현이 어떤 인물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가 어떤 조직과 모임에 참여했는지를 알아보는 것도 그의 인적네트워크를 밝히는 한 가지 방법이다. 따라서 필자는 기행현이 부안에 살면서 어느 조직이나 모임에 참여하여 어떠한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는가를 살펴보겠다. 그는 일기를 쓴 1866년부터 그의 부친이 사망하던 1869년까지 4년 동안 위친계(爲親契)를 비롯한 문계(門契), 문생계(門生契), 서림정계(西林亭契), 일냥계(一兩契), 향약안(鄉約案) 및 향회(鄉會) 등에 참여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다양한 조직에 참여하여 끈끈한 인맥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친계와 문계는 가족 또는 문중의 조직이며 문생계와 서림정계는 과거공부와 시작(詩

139 임혜영, 앞의 논문, 80~86쪽.

作)을 통한 교류 모임이고, 일냥계와 향약안 및 향회는 지역사람과의 친목과 결속을 위한 모임이다. 따라서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우선 가족이나 문중사람들의 친목을 위해 만들어진 위친계와 문계부터 차례로 살펴보기로 하자.

1) 위친계·문계

기행현은 1866년 3월 29일에 그는 형제 너덧 사람과 모여 위친계를 했다.¹⁴⁰ 물론 “서로 우정을 터놓고 펼쳤다”라는 표현으로 미루어 이때 처음 위친계를 조직한 것이 아니라 오래 전에 만든 후 자주 만나서 형제간의 돈독함을 스스로없이 펼쳤던 것으로 파악된다. 부친의 건강이 양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행현은 출타할 경우 항상 이를 걱정했다. 예컨대 그가 향시 응시를 위해 광주로 출타했다가 집으로 돌아와 제일 먼저 아버지의 건강 상태를 물어 무손(無損)하고 가족이 무탈하다는 말을 듣고서야 안심을 했다.¹⁴¹ 칠성암에서 공부를 하다 아버지가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듣고서 바로 산에서 내려와 의원을 찾아다니면서 백방으로 약을 구해 치료를 도왔다.¹⁴² 기행현은 이처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매년 한 두 차례 형제들이 모여 형제들간의 친목을 다지고 부모의 상을 대비했는데¹⁴³ 당시에 장례 비용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모임 때마다

140 (1866년 3월) 二十九日 … 爲親稷也 與四五人 暢叙交情 正是三月晦日 留春詩云 …

141 (1866년 8월) 二十七日 … 日暮抵巢 親節無損 渾眷無頌耳.

142 (1866년 10월) 十七日 … 聞親爲欠寧 … 故下家則 親爲大損 以疾改病 故卽向醫家問則 累年灯下角好云 故卽求用之 別無大效; 十八日 … 親爲少愈; 十九日 … 往醫家加味二陳湯一帖 煮飲別無效.

143 (1866년 10월) 三十日 … 爲親稷日也; (1867년 11월) 初三日 … 爲親稷日 故四五人

각각 5전씩 내어 저축했던 것으로 보인다.¹⁴⁴ 아무튼 위친계를 통해서 가정에서 형제간의 우의가 돈독했음을 알 수 있다.

기행현은 가족의 모임 뿐 아니라 문중의 회합에도 열성적이었다. 부안에 사는 행주 기씨는 그 뿌리를 광주와 장성에 있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그는 향시를 치르기 위해 광주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월봉서원에 들러 봉심하고 선산에 가서 성묘를 했으며 이름난 종인들을 만난 바 있다.¹⁴⁵ 그는 문중의 모든 일 예컨대 족보 수단(收單), 재실 증진, 선산 개장 등에 열성적으로 참여했다. 가끔 폭설이 내리는 등 예측하지 못한 일로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긴 했지만 그는 4월과 11월에 열리는 문계에 거의 참여하고 또 선산에도 다녀왔다.¹⁴⁶

기행현이 가족과 문중의 모임에 적극적이었던 것은 부안 고을 내에서 그 집안의 위상과 관련이 있다. 부안에 세거하는 행주 기씨는 기묘명현으로 추송된 기준(奇遵)의 형인 기진(奇進)의 후손으로 기종와(奇宗窩)가 광주에서 부안으로 이거했지만 그 이후 단 한 명의 생원진사시나 문과 합격자를 배출하지 못했다. 그 결과 그의 가문은 부안에서 알아주는 그런 집안은 아니었다. 시골에서조차 알아주지 않는 몰락한 향반(鄉班)으로 평가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래서 그는 가족이나 문중의 모임에

來會; (1868년 3월) 三十日 … 往新洞 修爲親禋.

144 (1869년 4월) 二十九日 … 每名下 五羹式 爲親作禋.

145 (1866년 8월) 二十二日 … 余亦發行次 往于宗人舍館 同行至月峯書院宿所; 二十三日 … 奉拜諸先生; 二十四日 … 先山省墓 尋訪諸族; 二十五日 … 發行 至廣谷族兄冠鉉家 … 日暮到下莎 訪奇亮衍未逢 暫見奇掌令.

146 (1866년 4월) 初二日 … 吾門禋日也; (동년 11월) 初二日 … 吾門禋也; (1867년 11월) 初二日 白雪終日紛紛 來數尺餘 門禋日 阻雪人莫往來; (1868년 11월) 初二日 … 修門禋; (1869년 4월) 初二日 … 門禋日 故鳳隱洞先山下人數三人來去.

적극적일 뿐만 아니라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접의 활동에도 능동적일 수밖에 없었다.

2) 문생계·서림정계

기행현은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백학래의 제자였다. 백학래는 아버지의 병환에 단지(斷指)를 할 정도로 효성이 지극했을 뿐 아니라 어려서부터 시문으로 명성이 널리 알려졌으며 1859년(철종10)에 진사시에 합격했다.¹⁴⁷ 그래서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접장으로 오랫동안 초대되었다. 1866년 9월 15일에 백학래의 제자 30여 명이 문생계를 개최했다.¹⁴⁸ 그 후 매년 2월 30일이나 3월 1일에 정기적으로 그의 문학생들이 양산(陽山)이나 둔계(澗溪)에서 모였는데 백학래가 이곳에서 접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¹⁴⁹

서림정은 1848년(헌종14)에 현감 조연명(趙然明)이 관아의 서쪽에 상소산(上蘇山)에 정자를 짓고 계(稷)를 조직해서 매년 봄가을에 한 차례씩 시회(詩會)를 열었다. 1866년(고종3)에 당시의 현감 이운필은 이 계를 중수하여 고을의 백성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시회로 부활시켰다. 물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부안의 유림들의 협조가 컸기 때문이다.¹⁵⁰ 기행현

147 白鶴來 水原人 … 己未進士 性本至孝 親癘斷指 器宇穎悟 詩文鳴世(『부풍승람』 4, 司馬).

148 (1866년 9월) 十五日 … 是日 陽山白靑田門生稷也 團會三十餘人脩稷.

149 (1867년 2월) 三十日 … 澗溪白靑田門生稷日 故往參; (1868년 2월) 三十日 … 白靑田門生稷日 故往參 … 靑田早朝來到 先去; (1869년 3월) 初一日 … 往陽山 參靑田門生契.

150 西林亭 … 憲廟朝戊申 縣監趙然明草蒔 … 因設稷 而每年春秋一次唱和 … 丙寅秋

은 1867년 11월 15일에 서림정계에 참여하기 위해 읍내로 갔는데 당시 일기를 보면 서림정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매우 자세하게 밝히고 있다.

부안의 서림정은 전임 태수 조연명(趙然明, 호는 三巖)이 세웠으며 계(稷)가 있었다. 그래서 현임 수령인 이운필(李雲弼, 호는 雨聖)이 이를 중수해 다시 계를 실행하고자 모임 날짜를 내일로 정했다. 그러한 까닭에 나는 밤에 읍내에 (미리) 도착해서 남하주인(南下主人) 이복(李福)의 집에서 잤다.¹⁵¹

다음날 예정대로 서림정계가 열렸는데 마침 임금이 경복궁으로 이어(移御)하는 날이었다. 경사가 이처럼 겹치자 하루종일 떠들썩하게 노래를 부르고 시를 읊으며 놀았다. 심지어 그 여흥이 밤새도록 이어졌다.

경복궁으로 임금이 옮겨가는 날이었다. 온 고을 사람이 다 모여 서림정에서 수계(修稷)를 했다. 생황과 노래가 떠들썩하여 이날이 천하가 즐기는 날임을 알게 하였다. … (수령이) 하루 종일 즐겁게 놀고서 저녁에 동헌으로 돌아갔다. 밤새도록 즐겁게 노니 노랫소리가 커지고 요란하여 속삭이거나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다.¹⁵²

境內紳士捐義重冊 一新丹雘 倍加舊制(『부풍승람』, <누정>)

151 (1867년 11월) 十五日 … 扶風西林亭 前到(任의 誤)太守趙然明(號三巖)之所作有稷故時倅李雲弼(號雨聖)重修 更欲修稷之意 定日子于明日 故夜到邑底 南下主人李福家宿

152 (1867년 11월) 十六日 … 景福宮移御日也 一郡畢集 修稷於西林亭 笙歌鼎沸 因知此日天下同樂之日也 … 終日勝遊 暮歸東軒 終夜勝遊 歌聲昇沸 吟談未作.

기행현은 이때 사회에 참여하여 신구계첩(新舊稷帖)을 살펴보았는데 이 사회에 부안 출신의 전현관직자와 생원진사 합격자 및 일반 유생을 비롯하여 책실(冊室)과 향리(鄕吏)까지 40여 명이 참여하고 있었다.¹⁵³ 기행현은 이때 살펴본 계원 명단을 일기에 옮겨 썼는데 그것은 아래의 <표 11>과 같다.

<표 11> 서림정계 계원 명부

구분	성명	이력	구분	성명	이력
계장(稷長)	김양묵(金養默)	정언(正言)		민치정(閔致鼎)	
계원(稷員)	이겸술(李謙述)	진사(進士)		김동환(金東煥)	
	이관술(李觀述)			김상만(金尙晩)	
	이동식(李東植)			최로수(崔魯洙)	
	백학래(白鶴來)	진사		김영표(金永杓)	
	고제희(高濟羲)	만경현령 (萬頃縣令)		이현오(李玄吾)	책실(冊室)
	채대영(蔡大永)	주서(注書)		엄석구(嚴錫龜)	
	이규백(李圭白)	정언		이방헌(李邦憲)	
	송방식(宋邦植)			김기우(金基宇)	
	허희(許縉)			김수학(金洙學)	
	김규혁(金奎赫)			최재철(崔載徹)	
	고규상(高圭相)			신응환(辛應煥)	읍중계원 (邑中稷員)
	백학수(白鶴洙)			신동직(辛東稷)	
	김쇄모(金瑣摸)			신학조(辛鶴祚)	

153 (1867년 11월) 十六日 … 見新舊稷帖 稷長金正言養默 其次李進士兼述 李觀述 李東植 白進士鶴來 高萬頃濟羲 蔡主書大永 李正言圭白 宋邦植 許縉 金奎赫 高圭相 白鶴洙 金瑣摸 李柄英 許準 金基澤 金永彩 河用必 金在洛 閔致鼎 金東煥 金尙晩 崔魯洙 金永杓 冊室李玄吾 嚴錫龜 李邦憲 金基宇 金洙學 崔載徹 邑中稷員 辛應煥 辛東稷 辛鶴祚 金■■■ 辛鍾斗 辛■■■ 辛在明 金明俊 辛■■■ 不可盡記.

	이병영(李柄英)			김□□(金□□)	
	허준(許準)			신종두(辛鍾斗)	
	김기택(金基澤)			신□□(辛□□)	
	김영채(金永彩)			신재명(辛在明)	
	하용필(河用必)			김명준(金明俊)	
	김재락(金在洛)			신□□(辛□□)	

계장인 김양목을 비롯해서 계원 채대영과 이규백 등은 문과에 급제한 후 여러 관직을 역임하고서 정언이나 주서에 임명되었으며 고제희는 음관으로 경상도 좌영장을 거쳐 만경현령을 역임했다. 이겸술과 백학래는 각각 진사시에 합격했다. 책실은 책방(册房)이라고도 하는데 수령의 비서 역할을 하던 사람이다. 읍중계원은 읍내에 사는 계원이라는 뜻이지만, 대체로 향리들이 읍(邑) 주위에 살면서 관아에 근무했기 때문에 그 출신의 계원을 그러한 호칭으로 불렀다. 이처럼 서림정계에는 시문에 능한 부안 출신의 전현직 관리와 진사 합격자 및 양반 출신 계원 그리고 수령의 참모나 향리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부안은 일찍부터 문학을 숭상하고 순후함을 좋아하여 군자향으로 알려져 있었다.¹⁵⁴ 그래서 양반뿐만 아니라 향리도 함께 시회(詩會)에 매우 활발하게 참여했다.¹⁵⁵ 더군다나 조선후기에 문과 출신의 수령이 부임하면서 이러한 풍조는 더욱 진작되었다. 서림정계는 간혹 암행어사가 내려왔기 때문에 예정된 일정을 뒤로 물리기도 하고¹⁵⁶ 또 수령의 공덕비를 건립하는 것 때문에 논란을 빚기도 했지만¹⁵⁷ 매년 봄과 가을에 정기적으

154 尙文學好淳厚[出地誌]君子鄉(『부풍승람』 1, 風俗).

155 (1868년 10월) 初三日 … 午後 往西林亭 鄉士鄉吏十餘員會.

156 (1868년 4월) 十五日 … 繡衣下來 故西林亭契日 退定.

로 실시되었다. 수령이 가끔 공무로 인해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지만¹⁵⁸ 기행현은 여기에 빠짐없이 참석했다.

3) 일냥계·향약·향회

기행현은 과거 시험 과정에서 만나 집을 구성하고 함께 공부했던 동료 중의 일부와 다시 계를 만들어 매우 긴밀하게 지냈다. 그는 1냥씩 돈을 내어 모임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고 나머지는 계금으로 조성하려 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와 관련해서 1866년 11월 15일의 일기를 살펴보자.

예동에 가서 계를 했다. 나와 중제 기항영(奇恒永), 민치정(閔致鼎), 김영표(金永杓), 민임복(閔任福), 김안수(金安倅) 등이 작년에 1냥씩 내어 계를 만들었다.¹⁵⁹

민치정과 민임복은 예동에 세거한 여흥 민씨 출신인데 이들은 원래 선조대에 서울에서 살다가 내려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후 무과 급제자를 많이 배출하여 부안 내에서 나름 이름이 있는 가문이었다.¹⁶⁰ 김영표는 역시 예동에 세거하던 의성 김씨 출신으로 오봉(鰲峯)이라는 호로 널리 알려진 김제민(金齊閔)의 후손이다. 김제민은 아버지 김호(金灝)가 부

157 (1869년 3월) 十三日 … 禮洞閔友金友來到 言西林亭契近脩 而稷中爲本官碑云.

158 (1868년 10월) 初三日 … 本官自南社倉入衙 送待童致言 未出參見云 韻字草送云.

159 (1866년 11월) 十五日 … 往禮洞修稷 余及從弟恒永 閔致鼎金永杓閔任福金安倅 昨年一兩式作稷.

160 驪興閔氏 閔譜[文仁公潰后 左承旨 宣祖朝 自京城來](『부풍승람』 3, 姓氏); 閔庭鴻[驪興人 左承旨諸子 武 判官 判決事]; 閔庭鳳[驪興人 判官庭鴻弟 武 郡守 歷典六邑 以清白稱](『부풍승람』 4, 무과).

안 응동에서 처가살이를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태어나 1558년(명종13)에 진사시에 합격하고 1573년(선조6)에 문과에 급제한 후 화순현감과 순창군수를 역임한 인물로 자손들이 부안과 고부에 흩어져 살고 있었다.¹⁶¹ 기행현이 부안의 유력한 집안의 자제들과 계를 만들어 함께 했던 것은 이들과의 교류를 더욱 돈독하게 하려는 뜻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조선중기에 향약이 고을에서 점차 시행되었는데 후기에 이르면 이것이 마을 즉 면(面)에서도 이루어졌다. 이를 면향약(面鄉約), 그리고 그 모임을 면회(面會)라고 했는데 기행현은 이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그것은 당시 고을이나 면의 현안이 면회나 향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다음의 일기를 보면 그러한 것을 알 수 있다.

8일의 향회는 (고을에서 배정한) 소군(小軍)의 숫자를 채우는 일로 동원(東園)에서 모일 예정인데 지금까지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대촌(大村)은 2~3명, 잔촌(殘村)은 1~2명으로 정할 것이라 한다.¹⁶²

예동에 가서 향교의 통문을 보았더니 “문벌 출신으로 명경에 뛰어난 선비 한 명을 거원(擧員)으로 정하여 전주 모의소로 보내는 일로 내일 향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우리 고을에서는 김병용을 관에 천거할 것이라고 한다.¹⁶³

161 양만정, 「扶安邑 甕井마을의 歷史」, 『玄谷楊萬鼎鄉土史論文集』, 정화사, 1994, 431쪽.

162 (1866년 9월) 初五日 … 八日鄉會 小軍充數之意 會于東園 至今未快 而大村或二三名 殘村或一二名爲定云.

163 (1866년 10월) 初五日 … 至禮洞 見鄉校回文曰 有門閥明經之士一人 定舉員 治送于全州募義所事 明日鄉會云 而本邑以金秉鏞稟官云.

향회에서는 마을에 배당되는 구역의 인원을 정하기도 하고 모의소로 파견할 인물을 선정하여 수령에게 천거하기도 했다. 당시 마을이나 고을의 현안을 수령이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면회나 향회를 통해 구성원끼리 논의하여 결정하도록 했다. 기행현은 당시의 현안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그렇지만 아직 젊기 때문인지 향교에서 모임을 갖는 향회에는 잘 참여하지 않았고 대신 이에 참여했던 숙부를 통해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해 들었다.¹⁶⁴ 그러나 가까운 곳에서 개최되는 면회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았다. 더구나 그 임원들은 자신과 매우 친숙한 인물들이기 때문이었다.

예동에 갔는데 김윤호(金潤浩), 백진사(白進士), 김영효(金永孝), 임정묵(林貞默) 등 서너 사람이 와서 모였다. 남하향약안(南下鄉約案)을 보았는데 진신유사(縉紳有司)에는 부사과(副司果) 김양묵(金養默), 읍서기유사(邑書記有司)에는 진사 백학래, 별유사(別有司)에는 김병용, 면서기유사(面書記有司)에는 민치정, 하유사(下有司)에는 장달매(張達每)였다.¹⁶⁵

읍서기유사인 진사 백학래는 기행현이 예재접을 할 때의 접장이고, 별유사 김병용은 예재의 주인이며 면서기유사 민치정은 예재의 동접(同接)이었다. 따라서 기행현은 남하면의 주요한 현안을 결정하는 면회에는 스스로림없이 출입하여 향약안도 살펴보고 당면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164 (1866년 12월) 二十六日 … 是日以鄉約事 面會于松齋 故叔父往; (1869년 2월) 十五日 晴 鄉會於校中 故叔父入參; (1869년 10월) 二十七日 晴寒 季叔父自鄉會所來臨 聞則船破稅米 還徵民間之意 鄉會各從其畚主徵納云.

165 (1866년 12월) 二十七日 … 往禮洞 金潤浩白進士金永孝林貞默三四人來會 見南下鄉約案 則縉紳有司副司果金養默 邑書記有司進士白鶴來 別有司金秉鏞 面書記有司閔致鼎 下有司張達每.

피력하고 또 현안에 대한 여러 정보도 얻었던 것 같다.¹⁶⁶

5. 맺음말

『홍재일기』는 과거에 응시하기 위해 이를 준비하던 자들이 어떻게 접을 구성해서 무엇을 공부하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양반이지만 부안 내에서 유력한 망족(望族)이 아닌 가문 출신이 어떻게 인적네트워크를 구성해 나가는지를 알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생각된다.

격변하는 시대에 태어난 기행현은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자신에게 덧씌워진 전통시대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무척 노력했다. 부안 내에서 유력한 가문이라 할 수 있는 부령 김씨, 전주 최씨, 여산 송씨, 의성 김씨, 여흥 민씨, 수원 백씨 자제 등과 접을 만들어 함께 공부하고 향촌 내의 각종 모임에 부지런히 출입했지만 결국 향리도 참여하는 서림정계에 그나 그의 가족들은 계원으로 이름을 올릴 수 없었으며 또 동접생들이 임원으로 등록된 면향약에도 참여는 할 수 있었으나 임원이 될 수는 없었다. 그가 과거를 치르기 위해 광주에 갔을 때 기껏해야 선영에 성묘하고 장성의 친척이나 방문했으며 서울에 올라갔을 때 겨우 수령의 본가에 들러 인사한 것 이외의 일정을 잡지 못했던 것은 그만큼 폭넓은 인적네트워크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부안이나 그 주위 고을에 사는 사람들과 교

166 (1867년 8월) 初十日 … 聞鄉會消息 則一境內作五倉云.

류를 했을 뿐 전라도 전주나 서울 또는 그 근교에까지는 연망을 형성할 수 없었다. 1887년(고종24)에 발간된 『부안지』나 1932년에 간행된 『부풍승람』에도 기행현이나 그의 친척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은 바로 그러한 소산이었다.

이러한 시기에 기행현은 자신의 재능에 따라 능력을 발휘하려 했지만 전통시기의 정치적·사회적 굴레를 벗어나 어려웠다. 좀더 많은 시간과 노력 혹은 피와 땀이 필요했다. 전통시기에 내재화된 여러 굴레와 기행현과 같은 하층양반 혹은 평천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이 과열음을 내며 빚어진 충돌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동학농민전쟁이라 생각된다.

투고일 : 2023.11.06.	심사일 : 2023.11.14.	게재확정일 : 2023.11.16.
-------------------	-------------------	---------------------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
- 『호구총수』
- 『七星菴同遊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청구기호 위창古3606-1

- 『국역 홍재일기』,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 2022.
- 『국역 부풍승람』, 부안교육문화회관, 2021.

- 김동석, 『조선시대 선비의 과거와 시권』,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21.

- 김영준, 「19세기 후반 부안군 훈집(訓執)의 성격과 역할 -『홍재일기』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77, 2023.
- 임혜영, 「『홍재일기』를 통해 본 지방사족의 일상생활」, 2022년 이재연구소 학술대회, “『홍재일기』(1866~1911)로 본 부안의 사회상” 발표자료집.
- 송행근, 「『홍재일기』에 나타난 기행현의 학습과정과 중국 시문의 수용」, 2022년 이재연구소 학술대회, “『홍재일기』(1866~1911)로 본 부안의 사회상” 발표자료집.
- 전경목, 「김병황의 과거 응시 전략과 그 함의」, 『일기의 행간에서 조선의 삶과 문화 깊이 읽기』, 새물결, 2018.
- 양만정, 「扶安邑 甕井마을의 歷史」, 『玄谷楊萬鼎鄉土史論文集』, 정회사, 1994.

기행현의 과거 준비와 응시 및 인적네트워크 -1866년~1869년을 중심으로-

전경목(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필자는 기행현이 쓴 『홍재일기』를 분석해서 그의 관심이 어떻게 변천되었으며 그에 따라 인적 네트워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그가 45년 동안이나 일기를 썼기 때문에 시기를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그가 일기를 쓰기 시작한 1866년(고종3)부터 부친이 사망한 1869년(고종6)까지 4년 동안의 일기를 분석해서 이 기간 동안 그가 과거시험 준비에 집중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공부 모임인 ‘접(接)’을 어떻게 구성하고 무슨 공부를 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 지방과 중앙의 과거 시험을 치르기 위해 오가는 과정에서 응시 이외에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를 밝히겠다. 끝으로 이 4년의 기간 동안에 그가 향촌사회에서 어느 조직이나 친목단체에 참여하여 어떠한 인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 결과 기행현의 나이 24세부터 27세에 이르기까지 ‘접’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과거시험 공부를 하고 동료나 스승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젊은 유학자로서 자신의 삶에 왕성한 의욕을 보였다. 그러나 조선후기 대부분의 유학자가 그러하듯 부친이 사망하자 그의 관심은 과거응시에서 멀어졌으며 향촌지역의 조직과 동향에 대해 크게 주목하고 여기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가 추후 어떠한 모습으로 변모해 나가는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주제어 : 홍재일기, 기행현, 과거(科擧), 접(接-공부모임), 인적네트워크

Abstract

Ki Haeng-hyeon's Preparation for and Participation in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and His Human Networks -Focusing on the Period from 1866 to 1869-

Chon, Kyoung-Mok(Professor Emeritus at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This study analyzes Hongjae Diary written by Ki Haeng-hyeon to examine the transition of his interest and the accompanying changes in his human networks. As Ki wrote his diary for 45 years, this study focuses on an established period to increase analytic efficiency. Specifically, the target range of research includes Ki's diary records created for four years ranging from 1866 (Year 3 of King Gojong) when he began writing his diary to 1869 (Year 6 of King Gojong) when his father passed away. Considering his intensive preparation for a civil service examination during this period, this study focuses on investigating the following aspects: the formation of a jeob (接), a study group that Ki formed; academic fields that he studied for the examination; other activities that he conducted in regional and capital areas before and after his participation in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and human networks that he established based on his involvement in certain organizations or social groups in rural communities during the four-year period.

The analytic results show that Ki actively participated in a jeob to study for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maintained close relationships with his

colleagues and teachers, and lived an enthusiastic life as a young Confucian scholar from the age of 24 to 27. However, as observed in the lives of most Confucian scholars in the late Joseon period, Ki gradually lost his interest in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after the death of his father. Instead, he paid great attention to organizations and trends in rural communities and joined these groups. Follow-up research will be required to examine the transformations in his life after this period.

key word : Hongjae Diary, Ki Haeng-hyeon, Civil service examination(科
舉), Jeob (接, a study group), Human networks